

손·기·황 해외파 총출동... 아시안컵 59년 恨 푼다

〈홍민〉 〈성용〉 〈의조〉

벤투호 엔트리 23명 발표... 지동원·이정용·황희찬·김진수 등 주세종 부상에도 일단 승선... '광주 FC 득점왕' 나상호 활약 기대

광주 FC 나상호의 화려한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나상호의 무대가 된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2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아시안컵에 참가할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K리그를 중심으로 울산에서 동계 훈련을 진행했던 벤투 감독은 이날 유럽파를 아우른 최종 23인을 확정했다.

K리그 2 득점왕에 빛나는 광주 에이스 나상호도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올 시즌 16골을 넣으면서 'K리그 최연소 득점왕'에 등극한 나상호는 지난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호주와의 평가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까지 치르며 승승장구했다.

지난 여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나상호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23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까지 노려보게 됐다.

부상에서 회복한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을 비롯한 손흥민(토트넘), 이정용(보훔), 기성용(뉴캐슬), 황희찬(함부르크) 등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다.

“2018 K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황의조(김바 오사카)와 부상에서 돌아온 김진수(전북)도 대회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간다.

울산 전지훈련을 통해 '눈도장 찍기'에 나섰던 박주호(울산), 박지수(경남), 이진현(포항), 한승규(울산), 김준형(수원), 장윤호(전북), 김승대(포항), 조영욱(서울)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이날 해산했다.

예상치 못했던 부상 변수로 최종 명단 변동 가능성도 있다.

아시안컵 명단에 포함된 주세종(아산)이 이날 연습경기 도중 허벅지 부상을 당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도 명단 발표를 1시간 가량 연기했던 벤투 감독은 일단 주세종의 이름을 명단에 넣었다. 하지만 주세종의 부상 회복 정도에 따라 이진현으로 최종 명단이 교체될 수도 있다.

한편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23인의 최정에 멤버들은 오는 23일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한다.

한국은 1월 7일 필리핀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 뒤 12일 키르기스스탄, 16일 중국을 상대한다.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2019 아시안컵 명단(23명)

▲GK = 김승규(빗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조현우(대구FC) ▲DF = 김영권(광저우), 정승현(가시마), 권경원(텐진), 김민재, 이웅, 김진수(이상 전북), 김문환(부산), 홍철(수원) ▲MF = 나상호(광주), 기성용(뉴캐슬), 정우영(알사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황인범(대전), 주세종(아산), 이재성(울슈타인킬), 황희찬(함부르크), 나상호(광주), 이정용(보훔), 손흥민(토트넘)

2019 아시안컵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 기간 2019.1.5~2.1 개최국 아랍에미리트

FW 황의조(김바 오사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A조 아랍에미리트, 태국, 인도, 바레인	B조 호주,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C조 대한민국,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MF 기성용(뉴캐슬), 정우영(알사드),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황인범(대전), 주세종(아산), 이재성(울슈타인킬), 황희찬(함부르크), 나상호(광주), 이정용(보훔), 손흥민(토트넘)	D조 이란, 이라크, 베트남, 예멘	E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 북한	F조 일본, 우즈베키스탄, 오만, 튀르키예니스탄
DF 김영권(광저우), 정승현(가시마), 권경원(텐진), 김민재, 이웅, 김진수(이상 전북), 김문환(부산), 홍철(수원)	C조 한국 조별리그 일정		
GK 김승규(빗셀 고베),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조현우(대구FC)	1월 7일 (월) 오후 10시30분 대한민국 vs 필리핀	1월 12일 (토) 오전 1시 대한민국 vs 키르기스스탄	1월 16일 (수) 오후 10시30분 대한민국 vs 중국

※한국 시간 기준

세종(아산), 이재성(울슈타인킬), 황희찬(함부르크), 조(김바 오사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이정용(보훔), 손흥민(토트넘) ▲FW = 황의조(김바 오사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의 손흥민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8-2019 카라바오컵(잉글랜드 리그컵) 8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펼~펼~ 나는 '손'

리그컵 아스널전 시즌 6번째 골... 토트넘 2-0 승리 이끌어

손흥민(26·토트넘)이 잉글랜드 진출 이후 좀처럼 뚫지 못하던 아스널과의 '복련던 터비'마저 정복하며 12월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손흥민은 20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에서 전반 20분 경기의 결승 골을 터뜨려 팀의 2-0 완승을 이끌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6번째 골이다. 리그컵에서는 지난달 1일 웨스트햄과의 4라운드(16강전)에서 기다리던 시즌 마수걸이 골을 포함해 2골을 폭발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득점포다. 이 골은 손흥민이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이후 아스널과의 '복련던 터비'에서 남긴 첫 골이기도 하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이 경기

전까지 아스널과 8차례(프리미어리그 7경기·리그컵 1경기) 맞대결을 치렀는데, 득점 기록이 없다.

직전 대결인 이탈 초 리그 14라운드 원정을 포함해 아스널과 맞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경기들이 있었으나 라이벌 대결에서 한 골도 없는 건 공격수로서 갈등을 느낄 법한 부분이었다.

더구나 최근 리그 대결에선 팀의 패배 속에 '다이빙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터라 아스널 원정에서 기록한 이번 골이 그에게 주는 기쁨은 더욱 크다.

손흥민은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남자 축구선수 '톱100'의 71~100위 중 당당히 78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직후 라이벌전에서 득점 포를 가동해 명성을 더욱 빛냈다. /연합뉴스

아산 무궁화 '기사희생'

아산시의회 예산 복원... K리그2 내년 10개 구단 유지

해체 위기에 놓였던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아산 무궁화가 적극적으로 기사희생하면서 내년 시즌 K리그2(2부리그)에 참가하게 됐다.

아산 구단 소식에 밝은 축구계 관계자는 20일 "아산시의회가 삭감했던 아산 구단 지원 예산을 살리기로 하면서 아산이 내년 K리그2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앞서 아산시가 축구단 운영 예산으로 신청한 19억5000만원 가운데 5억원만을 승인했다.

5억원도 구단 산하 유소년팀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산을 위한 직원 운영비로 책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이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아산 구단 존속을 요청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서고,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삭감했던 예산을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억5000만원이 추가로 구단 운영

지원에 배정될 것으로 보여 내년 시즌 아산이 K리그2에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아산은 올해 K리그2 우승으로 1부 자동 승격 자격을 얻었지만, 경찰청의 선수 모집 중단으로 내년 최소인원(20명)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승격 자격을 박탈당했다.

아산은 이후 시민구단 전환을 통해 내년 K리그2에 참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아산이 시민구단 전환을 조건으로 20일까지 리그 참가 여부 결정을 유예했다.

아산은 아산시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경찰청 소속인 선수 14명을 활용하는 한편 선수를 추가로 충원해 리그 참가를 위한 최소인원(20명)을 채워 K리그2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로써 K리그2는 내년 시즌에도 10개 구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 FC 내년 시즌 '켈미' 유니폼 착용

파트너십 계약 체결

프로축구 광주FC가 2019시즌 켈미(KELME) 유니폼을 입는다.

광주는 지난 19일 2019시즌부터 2년간 공식 용품 후원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는 내년부터 프로팀과 유소년팀 유니폼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의류와 용품 등을 켈미로부터 공급받는다. 켈미는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A보드 광고판 2면과 C사용권 등을 갖

는다.

40년 역사를 지닌 켈미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스포츠 용품 브랜드로 전 세계 40여개 국에 진출해 있다. 축구팀으로는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알라베스, 라요 바예카노 등을 후원하고 있다.

켈미코리아 권정철 대표는 "광주는 강한 팀이다. 승격에 도전하는 광주와 함께할 수 있어 을 시즌이 기대된다"며 "2019년은 복을 불러준다는 황금돼지의 해다. 우리(켈미)가 복덩이가 되어 광주의 승격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알, 클럽월드컵 3년 연속 우승 도전

결승 진출... 알아인과 대결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에 오르며 3년 연속 우승 기대감을 높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시마 엔틀러스(일본)와의 클럽월드컵 준결승에서 개러스 베일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결승에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전날 남미 챔피언 리버 플레이트(아르헨티나)를 승부차기 끝에 몰린 알아인(UAE)과 23일 오전 1시 30분 같은 경기장에서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디펜딩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는 3년 연속이자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노린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림 벤제마를 원톱에 세우고, 베일과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루스 등을 2선에 배치해 가시마 공략에 나섰다.

전반 중반까지 팽팽하던 균형을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깼고, 베일이 해결사로 나섰다.

베일은 전반 44분 마르셀루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지역으로 침투한 뒤 감각적인 슈팅으로 관순테가 지킨 가시마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후반에도 베일의 원맨쇼가 펼쳐졌다. 후반 8분 가시마의 백셀프 실수를 틈타 공을 잡은 뒤 두 번째 골을 넣었고, 2분 후에는 마르셀루의 패스를 받아 골망을 흔들며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연합뉴스